



# 보도자료

News Release

2017. 10.17(화)

국회의원 김성찬의원실  
(경남 진해, 농해수위)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1호

전화 02-784-2477 FAX 02-788-0136

## 해외 조성된 한국정원 40% 훼손·방치

-사후관리 지침 마련 및 철저한 사업추진필요-

20개국 40개소에 조성된 한국정원중 16개소(40%)가 훼손·방치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농해수위, 경남 진해)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국정원은 다양한 주체가(정부, 지자체, 민간 등) 문화교류, 자매결연, 사회공헌, 교민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후 관리협약을 통해 해당 도시에 기부되고 있음. 그러나 관리협약 자체가 단순 유지관리(주기적 청소 및 훼손방지시설 설치 등) 수준에 불과하여 정원 노후 및 훼손시 별다른 대책과 예산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림청은 2015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외 한국정원 업무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도 없고 인력도 2명에 불과하여 아직 사우디에 조성된 정원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5월 프랑크푸르트 한국의 정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2018년도 예산 2억원의 반영하였음. 화재가나 전소된 채로 1년 간 방치된 것임

김성찬 의원은“한국정원은 우리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침병으로서 서울에 위치한 목동 과리공원(프랑스), 여의도 앙카라 공원(터키)처럼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활용도 높은 자산”이라 말하고,“해외 한국정원이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성과정은 물론 위치 선정시 외교적으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이어 김 의원은“한국정원 조성시 현지의 유지관리 주체와 전문시공업체가 공사에 함께 참여하여 기본적인 전문 기술을 전수받고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해야한다”말하며 “예산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조성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강조하며 산림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음.

첨부 : 프랑크프루트 한국의 정원



프랑크프루크 한국의정원 전소 전



프랑크프루크 한국의정원 전소 후